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막

29일까지 시립도서관 일원서 진행… 국내·외 유명 그림책·작가 만날 수 있어

책의 도시 전주에서 국내·외 유명 그림책과 작가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도서전시회가 막을 올렸다.

전주시는 3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야외무대에서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개막행사를 했다.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금암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주시립도서관과 동네책방에서 그림책과 만나는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개막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개막식에 이어 도서관 1층에 설치된 해외 초청 작가인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원화 전시관을 둘러보고, 금암도서관으로 이동해 국내 초청 작가인 '이명애' 작가의 원화 전시관을 함께 둘러봤다.

전주시는 3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야외무대에서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개막행사를 했다.

국제그림책도서전은 이날 개막행사에 이어 4일 오전 10시 금암도서관에서 '우연한 발견 놀이하듯 확장해 가는 그림책의 세계'를 주제로 한 이명애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명애 작가와의 만남은 작가와 '휴가'를 함께 작업한 키다리출판사의 위정은 편집장이 참여하며, 현장에 참석하기 힘든 독자들을 위해 전주시립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약 한 달 간 지속되는 이번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통해 전주 곳곳이 그림책도서관, 그림책미술관으로 변신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금암도서관에서는 각각 '해외 그림책 작가 원화전'과 '국내 그림책 작가 초대전'이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하루 3차례씩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및 1인 극장 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책의도시정책과 책문화사업팀(063-230-18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림책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자 어른이 되어서도 함께 읽는 책으로, 단순하지만 삶의 지혜가 가득한 책이다"면서 "국제그림책 도서전이 독서대전과 함께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나라와 문화,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는 책의 힘을 보여주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는 3일 배우 윤균상을 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우 윤균상, 전주시 홍보대사 위촉

전주 출신 배우로 홍보 위한 적극 활동 약속

전주시는 3일 배우 윤균상을 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배우 윤균상은 전주 출신으로 서신중학교와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012년 SBS 드라마 '신의'로 데뷔 후, '피노키오' '육룡이 나르샤' '닥터스'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등에 출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방과 후 설렘' 등 예능프로그램 MC로 활약하면서 연기뿐만 아니라 진행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주 출신 배우'임을 강조함으로써 젊은 세대들로부터 전주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등, 이미 전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각종 드라마와 프로그램 촬영으로 바쁜 중에도 전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수락한 윤균상은 "늘 전주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균상 팬클럽(꽃님) 회원들은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전주시내버스에 KF-94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고향 사랑에 적극 나섰고, 전주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성금 기부, 영생고 장학금 수여 등 윤균상 배우와 함께 '전주 사랑'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반듯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윤균상 씨를 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전주시의 얼굴이 되어 전주의 매력과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균상 홍보대사는 "내 고향 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품격있는 문화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배우 윤균상은 앞으로 전주시 주요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거나 대외 홍보 활동을 하게 되며, 각종 매체에도 직접 출연하여 전주시를 알릴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어린이날 동물원 방문은 임시주차장·셔틀버스 이용하세요"

전주시, 극심한 교통 혼잡 대비 덕진경찰서와 특별 교통대책 추진

전주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동물원 방문을 계획한 전주시민들에게 전북대학교와 우아중학교에 주차한 후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는 제100회 어린이날인 오는 5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전주동물원 주변에 대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은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되면서 해마다 관람객이 증가하는데다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급증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어린이날 동물원 방문객수는 2019년도 3만6,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임시휴장 되었다. 이후 2021년도에는 1만6,900여 명이 방문했으나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동물원과 주변 도로의 원활한 차량이동 및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원이 개장하는 오전 8시부터 경찰 및 교통봉사자 합동으로 주차장 수용상황 및 교통흐름의 변화에 맞게 차량통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호성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동물원으로의 진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동물원주차장에서 호성동 방향으로의 진출만 허용할 계획이다.

조경단삼거리에서 동물원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소리로 교통통제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동물원 주차장이 만차될 때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삼거리까지 양측도로 갓길 주차가 임시 허용된다.

2단계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진입도로 양측까지 만차가 되는 시점부터는 조경단삼거리에서 배드민턴 경기장 진입도로 갓길에도 주차가 허용된다.

시는 이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인 전북대학교와 우아중학교 등으로 차량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전북대학교(2000대)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노상주차(926대), 길공원주차장(200대), 배드민턴경기장(140대), 어린이회관(300), 우아중·기린중·만수초·북초(350대) 등 총 9개소, 총 4000여 대 규모의 무료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임시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우아중학교(교문 앞)와 전북대학교(회차지) 2개소에서 동물원까지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으로 오가는 165번 시내버스의 경우 기존 1일 24분 간격 96회 운행을 15분 간격 144회로 운행 횟수를 늘리는 대신 기·종점을 전북대학교 회차지로 변경한다. 999번 버스도 기존 55분 간격 36회를 30분 간격 72회로 늘리고, 기종점을 우아중학교 정문으로 변경 운행된다.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동물원 방문객은 변경된 종점에서 하차 후 대기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올라타면 된다.

/김윤상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어린이날 기념 메세지 전달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기념 메시지'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우 예비후보는 3일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할 희망이고, 소중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2022년 5월 5일은 100번째 어린이날"이라며 "어린이날은 늘 특별하지만 올 어린이날은 조금 더 특별하다"고 의미을 더했다.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차별없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날을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됐다. 제정 당시 5월 1일이었던 어린이날은 1946년 5월 5일로 바뀐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어 우 후보는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가정과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보호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린이 그늘'에 대한 감시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온종일 돌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범기 후보는 "놀이는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자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라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장애친화 의료기관 운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생겼다.

전주시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예수병원이 시설개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편리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모를 거쳐 예수병원을 장애친화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예수병원은 전주시로터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병원 내 핸드레일을 보다 안전한 벽부형 핸드레일로 교체해 장애인 환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했다.

예수병원은 기존 일반대기실을 장애인 전용 휴게실로 바꾸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오랜 대기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진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의 병원 내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주기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는 등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 대학생들, 탄소중립 생활실천 릴레이 캠페인 전개

전북대·전주대·전주교육대·예수대·전주기전대·전주비전대 6개 대학 학생 참여

전주지역 6개 대학의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예수대학교·전주기전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 등 전주지역 6개 대학의 총학생회 임원으로 구성된 '전주시 대학생 정책협력단'을 중심으로 오는 13일까지 각 대학별로 대학교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인 '전주시 대탄생(대학생 탄소중립 생활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와 지역대학간의 협약사업인 ESG 공동실천 중 환경(E)분야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전주시 대탄생'은 대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실천사항을 알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6개 대학은 지난달 28일 전주교육대를 시작으로 오는 13일 전주비전대에 이르기까지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자체 기획 하에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

3일 전주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캠페인에서는 전주대 학생들이 총학생회에서 자체 기획한 나무모양 탄소중립 보드판에 '나만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방안'을 써 붙이고, 전주대에서 준비한 텀블러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윤상기자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 3-3-3 농업지원 정책 발표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가 전주지역 농민들은 위한 3(생산) - 3(판로) - 3(복지) 농업지원을 정책을 발표했다.

서윤근 후보는 3일 정책 발표를 통해 전주지역 농민들은 생산경쟁력, 판로확보, 타 산업에 비해 전무한 복지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자신의 3-3-3 농업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농가인구는 16,138명, 농가세대는 7,137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전주시 정책과 예산배정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서 후보는 "전주 농업의 생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주지역 특화작물의 고부가화, 전주 농업의 6차 산업 연계사업 지원 강화, 농민 외 농지소유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주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로대책으로는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전주푸드 직매장 확대와 공공기관 등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수도권과 도내 대형마트에 입점하고 온라인 판매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후보는 "타 산업에 비해 전무한 복지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료 100% 지원하고 연간 농민수당을 120만 원으로 상향하며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시내버스 결행 실시간 알린다

전주시는 총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서버 소프트웨어의 기능개발 및 버스차량 내 단말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내버스 결행정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노후 단말기 교체 및 소프트웨어 수정 작업 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중 결행 정보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자연생태관, 어린이날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시자연생태관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가족단위 시민과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특별 전시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날 당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직접 보고 만져 볼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대형육지거북, 비단뱀 구렁이, 애완 도마뱀을 전시하고, 반딧불이·닥터피쉬 체험과 가족 영화상영 등을 진행한다.

자연생태관 1층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대형육지거북을 전시하고, 장수풍뎅이 숲속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또, 관람객들은 먹이주기를 통해 다양한 생물의 습성을 관찰할 수 있고, 수조에 손을 넣으면 각질을 제거해주는 닥터피쉬도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생태관 2층에서는 2021년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품인 일러스트 작품과 정크아트를 볼 수 있으며, 희귀 곤충표본 전시뿐만 아니라, 반딧불이 체험관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자연생태관은 어린이날을 포함해 7일까지 3일 동안 △알라딘 △카3 △주먹왕 랄프2 가족영화 3편을 오후 2시부터 상영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